

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: 모자보건

수행과제명 :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

과제책임자 : 이선주 연구위원

Tel : 02-3156-7166, e-mail : leesut@kwidmail.re.kr

요 약

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

1.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

-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며, 동시에 새천년개발목표(Millemium Development Goals: MDGs) 이행 10주년이 되는 해임. 제54차 여성지 위위원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조함. 본 회의에서는 특히 양성평등 증진 없이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역설됨.
- 한국은 2009년말 OECD/DAC에 가입하여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,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를 연계하여 최근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모자보건관련 ODA정책과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2. 정책의 추진방향

- 모자보건 증진, HIV/AIDS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등 MDGs 달성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 지원을 확대
 - 과거에 축적한 경험(보건소 모자보건요원 배치, 산전산후 진찰과 분만 시행, 기생충·결핵퇴치 등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, 예방접종사업 및 전염병 관리 등)을 공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적 지원
 - 보건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양, 식수, 위생, 고용,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연계지원 확대

-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,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필요
 - ODA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KOICA의 내외적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보건의료 원조정책에 근거중심의 피드백 강화

- 성 주류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양화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의 확산을 꾀해야 함.
 - ODA 보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ODA 보건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ODA 보건분야에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,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

3. 정책효과

-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로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빈곤퇴치정책에 일조함.

- 수원국 여성들이 경제·사회개발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ODA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

-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, 국제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, 인권 외교를 통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▶ 주관부처 : 외교통상부(개발정책과), 여성가족부(국제협력담당관실)
▶ 관계부처 : 국무총리실(개발협력정책관실), 기획재정부, 한국국제협력단
